투데이 칼럼

산학협력 선도하는 대학으로

정 상 모
전주비전대 총장

전국 취업률 1위(졸업생 1천명 이상)를 기록한 전주비전대학교는 '취업명품대학 포지셔닝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비전대가 이런 고품격 취업의 질을 보장하게 된 이유에는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선도대학으로 외연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존전략으로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게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또한 전주비전대는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된 산·학·연 협력을 토대로 2020년, 2021년 각각 정부기관,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130억여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산학협력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도 도드라지는 명실상부한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이라고 자부한다.

이에 전주비전대는 지난 5년 동안 LINC+ 사업을 운영하며 학생 핵심역량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유연한 산학 친화형을 넘어, 산업 선도적인 방향으로 전면 수정 개편했다.

채용연계 계약학과, 기업주문형 교과과정, 신산업 분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캡스톤디자인, PBL(Problem Based Learning)수업, 플립드 러닝 등을 통해 대학의 역할을 '지식전달'에서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라는 시대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지난 10년간의 LINC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전주비전대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유 플랫폼을 통해,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인재양성,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 산·학·연 협력 지속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미래 선도형 혁신인재양성, 글로벌 산학연협력을 대학의 공유·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이번 LINC 3.0 사업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공동의 산·학·연 공유·협업 혁신 플랫폼 속에서 산학연 협력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전주비전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기고문

'장수는 가야地다'

한 병 태
장수문화원장

'역사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빠르게 변한다'

최근 저명한 고고학자가 한 강연을 통해 전한 말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란 문헌사 위주인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고대사는 문헌기록이 부족해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많은 연구자의 노력과 고고학적 성과와 더불어 역사는 끊임없이 재정립되고, 기록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금관가야', '대가야' 등 '6가야' 정도로만 알려졌던 가야역사도 근래에 그 영역을 넘어 호남까지 닿으며 '장수 가야', '운봉 가야' 등 전북가야로 대변되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변방의 무진장으로 불리며, 지방의 소도시 중에서도 소도시인 장수군이 가야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장수군은 역사문화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학술연구를 진행하며 가야 유적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왔다. 그 결과 동촌리고분군과 삼봉리고분군, 삼고리고분군이 국가사적과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고, 장수군은 '가야사'의 중심 지역이 되었다.

또한 이들 가야고분군과 봉화유적들을 통해 '장수가야'의 존재는 물론 '장수가야'가 얼마나 성대했고, 발달됐었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입증해 왔다.

이에 장수문화원은 장수군과 더불어 역사문화의 재정립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하며 일제강점기 역사 왜곡과 부족하게 정립된 한국의 고대사를 재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도 나와 있듯이 문화원의 설립 목적은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타지역의 문화유산 정립 과정을 "이벤트다", "허구다" 하는 식으로 비난하고 회화화하는 것은 문화원 설립 취지에 적합하지도 않고 존재의 이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018년부터 진행된 전북가야사 조사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가야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전체를 허구로 돌아가는 것이 스스로 정당한 행위인가도 되물어볼 필요성이 있다.

아직 전북지역의 가야문화가 모두의 공감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확인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한다면 앞으로의 '지역의 역사문화'는 틀에 갇힌 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확인되고 검증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화를 맞이하여 문화자치를 실현시켜야 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자세다. 학술성과는 비난이 아닌 지속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봐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동부지역에 우리의 조상이 남긴 소중한 가야문화유산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고, 일제강점기 일본인 도꾸라 세이지에 의해 장수군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이 도굴 피해를 입은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장수군의 가야문화유산은 그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며, 우리나라 고대사를 새로이 쓰는 획기적인 사실이자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이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장수군이 옛 가야地라 말하는 명백한 진실이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사 설

쇼트트랙 한국인 빅토르 안

빅토르 안(37)은 대한민국 출신의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였다. 귀화 전 이름은 안현수(安賢洙)다. 그는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귀화하여 러시아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당초 안현수는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명지초등학교 2학년 때 스케이트를 시작해 1996년 전국 남녀 학생 종별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했다. 명지중학교 시절 동계 체전 3연패를 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신목고등학교 진학 후 그는 전국 고등부 1위를 차지했으며 2002년 1월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1000m와 1500m에서 1위를 하면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그는 만 16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처음 출전한 세계 규모의 국제 대회에서 1000m에 결승까지 진출했다. 2002년 동계 올림픽에서 안현수의 특별 발탁을 두고 한체대와 비한체대 소속 간의 파벌 갈등이 일었다.

한국체육대학교 소속이었던 안현수는 여기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었다. 결국 2011년 러시아로 이주하였고, 러시아 국적까지 취득했다. 그는 2018년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려 했으나 러시아 도핑 스캔들에 연루됐고 결국 은퇴를 선언, 지난 2020년 중국 대표팀 코치직을 맡았다.

이번 베이징 동계대회 초반 노골적인 편파 판정으로 중국이 금메달을 따냈고 이로 인해 국내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그는 SNS를 통해 "제가 처한 모든 상황이 과거의 저의 선택이나 잘못들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떠한 비난이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빅토르 안에게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코치직을 처음 제안한 전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총감독 왕멍(37)은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빅토르 안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한국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반도 평화서밋의 과제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2 한반도 평화서밋'에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경기 가평에서 천주평화연합(UPF)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세계 157개국의 전·현직 정상과 종교계, 경제계, 언론계 인사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논의했다.

행사장에는 짐 로저스 엔터프라이즈 회장, 스리랑카 전 대통령, 전 이스라엘 총리, 전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 훈 센 캄보디아 총리,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전 캐나다 총리,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전 미 하원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학자 총재는 "지구상에서 마지막 분단국가인 이 나라가 통일되어야 동유럽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통일한국을 위한 '하나의 영토, 하나의 문화, 하나의 민족'이라는 원플랫폼 전략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공식 채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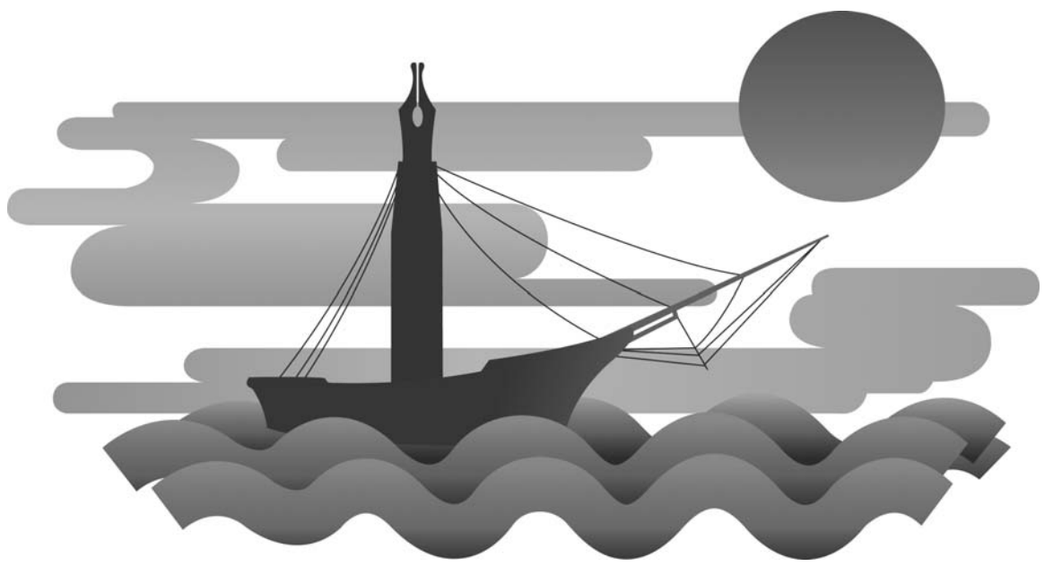
서울선언문은 서밋 이후 다시 157개국 정상들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려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단결,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요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화하는 상황을 자유세계에 대한 도전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유 국가들이 단결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에게 비핵화 문제는 절대 심각한 위협이 아니다. 오히려 비핵화가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적극적인 협력과 통합, 경제 발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무기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 선결 과제다.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귀중한 기회를 위태롭게 할 그 어떤 결정이나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